

[종합]

정몽구회장 오늘 소환

검찰 "비리 기업 총수 엄단"... 구속수사 유력

현대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4일 소환되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탄원서 내용을 수사에 감안하는지는 질문에 "대기업은 1인의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며 비리를 저지른 기업 총수를 엄단할 방침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父子) 구속 여부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중이지만 결정은 정 회장을 조사한 뒤에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협의 시인 여부는 법원 양형에서 고려되겠지만 구속·불구속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수사팀 내부에서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해 구속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채 기획관은 또 "(정 회장 신병처리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은 정의 권이며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왔다"며 "감경론"에 무게를 뒀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집행, 경영권 승계 비리, 부채탕감 로비 등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정 회장을 구속하고 아들인 정의선 사장과 현대차 임원진은 선처하자

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는 세계 서열 2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세계에 충격이 갈 수 있지만 이후 정 회장이 고령(68세)인 점이 감안돼 구속급행지나 보석 등 석방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정 회장을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지만 정 회장이 고령인 데다 조사량이 많아 이날 중 피의자 신분 조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밤샘조사 대신 다음날 정 회장을 재소환해 신문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휘발유값 '고공행진'

ℓ당 1,500원 넘어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지난주에 ℓ당 1천500원을 넘어섰고 경우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23곳의 주유소 980곳을 매주 표본조사하는 가격동향에 따르면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2월 넷째주의 ℓ당 1천464.78원 이후 7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4월 셋째주)에는 전주보다 17.86원 오른 ℓ당 1천509.49원을 기록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천500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10월 넷째주의 1천509.14원 이후 처음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민 75% "5년뒤 농촌생활 더 악화"

농촌경제연구원 전국 680명 조사

장래 불안·낮은 소득 '불만'

대다수 농민은 앞으로 농촌생활 수준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농촌생활에 만족한다는 농민은 9.5%에 불과한 반면 불만이 라는 농민은 절반을 넘어 농촌과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의 농민 680명을 상대로 작년 11~12

월 실시한 '2005년 농업인 의식 조사' 결과, 74.5%가 5년뒤 농촌생활 수준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이 설문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2003년 66.5%에서 2004년 67.8%를 거쳐 더욱 높아진 반면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는 대답은 2003년 9.4%에서 2004년 7.8%에 이어 지난해

는 6.8%로 떨어졌다.

현재의 농촌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9.5%로 전년(10.9%)보다 줄어든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2004년 48.8%에서 지난해 58.1%로 늘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7.5%에 달해 전년보다 7.4%포인트 높아졌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7.1%로 3.4%포인트 낮아졌다.

불만 이유로 46.8%가 '장래불안'을 들었고 '소득보장 미흡' 37.7%, '정부의 관심과 지원부족' 9.2% 등 순으로 답했다. /연뉴스



23일 평양 옥류관에서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이종석 남북수석대표(오른쪽)와 권호용 북측단장이 오찬을 함께 한 후 대동강변에 나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뉴스

청와대변인에 정태호씨 내정

청와대는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을 교체기로 하고, 후임에 정태호(43·사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5.31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으로 조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측 장기수 송환 용의"

장관급회담 사흘째... 우리측대표단 북측에 전달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23일 우리측 대표단은 남북·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측에 있는 장기수를 송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2일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북측이 대법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협력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의사를 밝힌 데 더해 북측에 우리측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명분도 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측대표단과 접촉하고 있는 회담 고위관계자는 23일 오후 평양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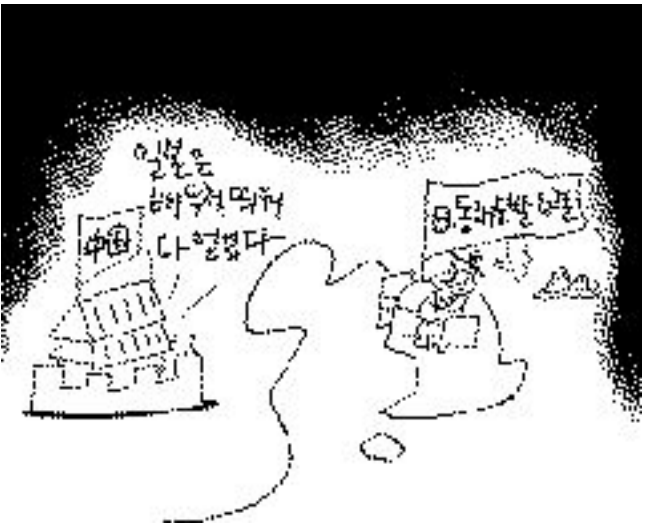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자와 특수한 상황이 있던 국군포로를 상봉·송환할 때 장기수를 포함시킬 용의가 있다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북측을 희망하는 장기수는 3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측은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측으로 송환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북측이 '언제 방북하면 좋을지' 이면에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물론, 실무대표 접촉에서도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연뉴스

빛의만경

- 김중두



이웃들이 하나같이 도움 안된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Auction No., Auctioneer, Property Address, Area, and Remarks.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including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매각 물건

Table with 5 columns: Auction No., Auctioneer, Property Address, Area, and Remarks.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including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광주지방법원 판사 손진홍 사법보좌관 이인철

2006. 4. 24. 광주지방법원 판사 손진홍 사법보좌관 이인철.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court's operations.

광주일보 광고점주안내.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services.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공고. 공고번호: 2006-1호. 공고내용: 주택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선정공고. 공고번호: 2006-2호. 공고내용: 주택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행안내. Includes information about hiking routes, weather conditions, and safety precautions.